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코리아 설교 21회

21. 예언의 성취(9.18.10. 21회)

2010년 9월 18일(안식일 아침)

[단2:29,30]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30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序;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성경의 계시를 확신하고 그 계시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호기심을 채우려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성경을 확신하게 하며, 믿음을 바르게 인도하고, 그리고 신자들이 살고 있는 그 역사적 시점에 신앙이 있어야 할 위치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지도를 받지 않는 신앙생활은 파산하게 되며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사실도 성경이 가르쳐준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다니엘서에 예언된 역사적 사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찾아보고 미래에 대한 예언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깨닫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 예언의 중심내용과 증거의 도구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이유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믿음에 활력을 더할 것입니다.

[요14:29]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13:19]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성경 예언의 중심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구주에 대한 것입니다. 곧 구주를 보내셔서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구주를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예언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사람을 택하시고 민족을 택하시며 나라를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구주가 오실 것과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자세하게 세상에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언하시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아서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장래를 미리 보여주시고 그것이 역사의 현장에서 성취될 때에 올바른 믿음으로 영원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잘 살아가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복된 생명의 기별을 신실하게 올바르게 증거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대하16:9] 여호와와 그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진심을 다하여 증거할 사람을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찾으셨습니다. 그렇게 살피는 중에 아브라함을 찾으신 것입니다.

[느9:7,8]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8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밝혀줍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었기 때문에 택함을 입은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유브라테스 강 동편에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24:2]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와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만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이 직업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나들이를 가면서 가게를 아브라함에게 맡겼습니다. 얼마 후에 한 사나이가 찾아와서 집을 지키는 우상 하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돌로 만든 우상 중에서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기고 아주 힘이 센 것처럼 보이는 우상을 꺼내 주었습니다. 손님은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요?”

“나는 50살이네. 30년 동안 군인 생활을 했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의 아버지께서 이 우상을 조각한 것은 1주일 전입니다. 이 우상은 아주 젊은 우상입니다. 손님은 30년간이나 군인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키기 위하여 태어난지 1주일밖에 안 되는 돌 우상이 필요합니까? 그런 일이 우습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손님은 화를 내면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조금 후에 나이 들어 보이는 여자가 왔습니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내가 섬기는 우상을 훔쳐갔다네. 그래서 새 우상을 사러 왔네.” 아브라함은 “당신의 우상은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군요.”라고 말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도 화를 내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그 가게 안에 있는 우상중에 가장 큰 우상을 남기고 모든 우상을 도끼로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 큰 우상의 손에 도끼를 쥐어놓았습니다.

나들이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가게를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 아브라함은 시침을 떼고 대답합니다.

“이 우상들이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는 식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가장 큰 우상이 식사를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다른 우상을 때려 부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이런 우상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물론 식사를 할 수

도 없고 더구나 다른 우상을 때려 부수는 일은 할 수 없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귀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이고 유대인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맨 먼저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10대조 셈에게 홍수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나이를 계산하면 셈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후에도 150년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셈은 600세를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셈의 나이는 450세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에게 가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많은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옳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창조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그릇으로 삼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느헤미야 9:7,8절에 간단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우상 깨뜨리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어린 자녀들에게 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가르쳐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입니다.

[창12:2,3]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의 후손은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고, 43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나왔으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당시 세상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땅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세 대륙을 왕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서 그곳을 통과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한 일은 역사에서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일을 수행한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수21:4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그들의 역사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를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고 예언하신 것이 온전히 성취된 것을 확인하고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이 역사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과 성취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소망을 굳게 하게 됩니다.

2. 국가들 역사의 예언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복음을 나타내시고 그 복음을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모든 민족에게 이르게 하시려는 것인데, 이 일이 순조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잘 말하는 마귀 사단의 세력의 방해입니다.

사단은 개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개개인 사람들을 동원하여 방해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민족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민족을 동원하여 방해합니다. 국가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국가를 동원하여 방해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방해하기 위하여 사단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교회가 복음 사업을 할 때에는 교회를 조직하여 방해합니다. 사단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내며 자기의 일꾼들을 의의 일꾼처럼 가장하여 거짓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참 구원의 복음을 혼란하게 하여 사단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단의 수단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고후11:13~15]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퀘홀의 역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15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성경에 미리 이런 사실들을 기록하도록 계시하여 주신 것은 진리의 백성들이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랑입니다.

사단의 이런 수단이 바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세력으로 조직화되고 구체화될 것도 가르쳐주셨지요.

[살후2:3,4]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실패한 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 전파의 일을 진행하실 때 생기는 일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복음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세상에 전파하려고 하셨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었을 때, 사단은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고 우상숭배로 유혹하여 복음 사업을 방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주위에 있는 여러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들이 국가를 이루었을 때 주위의 국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압박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 바벨론에 포로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염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기도하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방해받을 것인지를 계시로 가르쳐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12장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전체적인 윤곽을 가르쳐주셨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구체적인 사실까지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올바르게 연구하면 세상의 장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주셔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정직한 마음으로 이 책들을 연구하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종결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하면 바벨론부터 로마까지 세계의 역사가 아주 정확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서양사를 살펴보면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니엘서를 연구하라고 말씀하

셨습니다.

[마24: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서를 읽으면 깨달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성경에 중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대한 예언은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 예언에 등장한 나라들은 이스라엘 국가 주변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방해하는 국가들입니다. 그 국가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사를 미리 계시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 주변의 강대국들에 대한 역사적 흥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에 대한 예언적 계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국가들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서에도 또 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에 나타난 사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하는 것입니다.

3. 다니엘 2장

다니엘서에는 세상의 장래에 대한 예언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장의 우상으로 보여준 예언입니다. 아마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대강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점령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왕족 중에 네 청년이 뽑혀서 궁중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지요. 그들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습니다. 그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을 마치고 바벨론 박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문관이 되는 그룹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2년에 왕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었다는 것만 기억이 나고 꿈의 내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아주 중요한 것 같은 인상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 박사들과 술사들, 점쟁이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불렀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아직 신참이라서 왕이 부른 사람들 중에 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 꾸는 꿈 자기가 잊어버린 그 꿈의 내용을 말하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단2:4~13]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5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 것이요 6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7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8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9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10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11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12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13 왕의 명령이 내리매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명령이 억지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생각하면 그럴만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평소에 자기들은 사람의 비밀한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공언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필요할 때 그것은 자기들이 모른다고 하니 지금까지 왕을 속여 왔다고 판단하였으니까 그런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 앞에 불려가 보지도 못하고 바벨로 박사라는 이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단2:17~19]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고하고 18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공훈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19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다니엘은 시위대장 아리옥에게 말하여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단2:26~30]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27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보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29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30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제 다니엘은 왕인 곧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 해석을 말합니다. 이 왕은 장래 일을 생각하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왕의 재위 2년은 이제 그의 통치가 안정적인 상태에 이른 때입니다. 그는 앗수르와 애굽과 주위의 강대국들을 점령하고 그 나라들이 자기에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했지요. 이 나라도 누군가에게 망하게 되지 않을까를 생각한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통하여 세상 나라는 다 망하지만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만유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각인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세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다니엘 2:31이하에 기록된 꿈과 해석은 이렇습니다. 먼저 꿈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장래 일을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을 때, 사람 모양으로 된 한 큰 우상을 보았습니다. 그 우상은 두렵고 광채가 특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각 다른 재료들로 만들어졌습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팔과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과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뜨인 돌이 날아와서 발과 발가락을 치니까 금은놋철로 된 그 우상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그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꿈 내용을 듣고 왕은 만족하면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해석입니다.

[단2:36~45]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37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38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무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39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넷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40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숴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같이 그 나라가 못 나라를 부숴뜨리고 빵을 것이며 41 왕께서 그 밭과 밭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42 그 밭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숴질 만할 것이며 43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44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성경을 읽었으니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바벨론 제국부터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를 세울 때까지의 역사입니다. 아마 영국의 역사가 기본이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짧은 말로 가장 정확하게 2,500년간의 세계사를 기록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바벨론 다음에 메디아와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다음은 로마 그 다음은 이런 제국과 같은 대 제국이 유럽 지역에 성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마는 게르만 민족 대 이동으로 망했고 그 영토 안에 게르만 민족으로 형성된 여러 나라들이 건국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반달스, 헤룰리, 동고트 등입니다. 오늘날 유럽 제국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나라들은 서로 합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리스 로마 같은 대제국이 성립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나라들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을 건국한 샤를 대제가 시도했으나 그가 죽자 시도는 끝났습니다. 나폴레옹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독일 황제 빌헬름 카이사르도 그런 사람이었지요. 히틀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지요. 그러나 다 빚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이 통일 제국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벌써 보시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울 때까지 세상 역사는 진행되는 데 그것은 이미 밭가락 시대에 이른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4. 이 꿈으로 주신 예언의 목적

이 꿈을 통하여 가르치려는 중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건설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런 역사적

나라의 끝에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건설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건설되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은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뜨인 돌로 비유된 나라입니다. 이 꿈이 가르쳐주는 사실은,

- 1). 하나님 나라의 성립- 역사적으로 성립됩니다. 이 열국 끝에 세워집니다.
- 2). 하나님 나라의 위치- 이 지구입니다. 돌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 3).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 4). 하나님 나라의 기간- 영원합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 5). 하나님 나라의 국민- 돌 나라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돌이 된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벧전2:4,5]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5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마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전10:4]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돌 같이 예수님께 연결됨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국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이 꿈이 가르치는 역사철학

이 우상은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다리와 정강이는 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 자체가 진행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1) 역사는 사람들이 진행시킨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계시된 것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 2) 역사는 진행될수록 가치가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에서 진흙으로 내려갔습니다.
- 3) 역사는 불안정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상체가 무겁고 강하며 하체가 가볍고 약합니다.
- 4) 역사는 황금이 지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머리가 금입니다.
- 5) 역사를 지배하는 사상은 바벨론 사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 머리는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 역사는 바로 그렇게 진행되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실한 예언이 없으면 이 세상 역사는 허무 자체가 아닙니까. 우리가 산 돌 같이 산 돌이신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나라가 바로 우리의 나라이다. 그곳에 꼭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이미 발가락 시대입니다. 곧 끝이 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오늘도 잘 준비된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예언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언된 역사적 사실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될 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해 주신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언의 지도를 따라 믿음이 있어야 할 역사적 바로 그 위치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여주시고, 머지않아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이 발가락 시대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살게 하여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374-9480으로 연락하시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374-9480으로 연락하시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